

“감사의 제사”

시편 50:23

11 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신앙생활에 감사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신앙도 회복되고 관계로 회복되고 기쁨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는 순간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감사의 고백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기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 중에서 가장 귀한 제물이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은 예배 드릴 때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립니다. 이것이 물질이기도 하고 혹은 헌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향내 나는 제물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는 것같이 큰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절망적 상황을 이같이 설명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합 3:17)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절망 중에 처해있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한분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현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앞으로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이 있지만 **첫째로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살후 3:2)**

보잘것없는 사람이 강력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삶에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 아

니면 초조한 삶을 사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주변에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미래의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여유와 다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감사의 근본은 구원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것을 다 잃는 극한 고통에 처했어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합 3:18)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순탄한 중에도 역경 중에도 감사하고, 풍족할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비결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보혈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면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첫 태생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기가 사는 집의 문 인방과 문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사망의 사자가 지나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었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편 33 편 9 절은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은 정직하고 진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렘 23:29)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나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방법

1.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자- 없는 것을 바라면 불행해 집니다.

마귀의 작전 제 1 호는 불평과 원망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 주어서 그 결과로 불신앙과 반역을 가져 오고 결국은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을 말하려면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작전 제 1 호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없는 것을 탐하게 만듭니다.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요 잘사는 길입니다.

2. 감사의 훈련을 통해 체질화 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감사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책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 역경을 이겨나갈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에 감사가 배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자로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 전부터 해 오던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늘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체질화 될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감사는 체질화 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체질화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나 자신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 타인에게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맞잡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는것을 믿어시기 바랍니다.

3. 찾아서 감사하라

시편 50 편 23 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 늘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면 더 주시고 자꾸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면 있는 것조차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비열한 자는 은혜를 원수로 갚고 평범한 사람은 은혜 받고도 입 닦아버리고 칭찬받는 사람은 은혜를 감사로 갚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 속에 내가 받은 것을 항상 헤아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늘 헤아려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1 장 3 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를 늘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것을 헤아려 감사하고 받지 않은 것을 헤아려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사람은 앉아서 늘 없는 것을 찾아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모든 환경을 이기는 백신이며 능력입니다.

나눔의 시간

1. 오늘 말씀에서는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 세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세가지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또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를 ‘찾아서’ 이야기해 봅시다.